

<통제된 이동과 경계의 조정: 임진강 및 주변 지역 다리 영상을 중심으로>
에 대한 논평

이익주 (한신대)

파괴와 복구가 반복되었던 임진강 다리는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의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11개나 존재하였던 임진강의 주요 다리에 대한 미군들의 기록영상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의 의미 뿐 아니라, 영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고, 역사적 사건에 개입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시선을 강화시키는데 혹은 부드럽게 포장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김민환 선생님의 논문은 미군들의 영상과 그 영상을 편집하여 미국 TV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Big Picture 그리고 1960년대 AFAK 프로그램 영상과 한국 문화영화 아리랑 다리까지 사회과학적 시선에서 심도있게 분석해 주고 있다.

파시즘에 대항한 2차대전에 미국이 참여하면서, 존 포드, 조지 스티븐스 등의 감독은 파시즘을 비판하고, 미국 군인들의 용맹함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프로파간다 홍보 영상들을 만들어낸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 미국의 위대함은 미국 군인들의 용맹함과 현신의 이미지와 동일시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2차 대전 이후 “미국 문화에서 군사적 행위에 대한 영화적 표상은 국가적인 자부심과 분리되기 어려운 듯이 보인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어떤 국가가 위대하다는 것은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적이고 국가적인 위신을 표상하는 군인들의 강인함과 용기는 전쟁에서 시험되고 증명된다.” (『카메라 폴리티카 하권』, 마이클 라이언, 더글라스 켈너, p.54). 이러한 면에서, 임진강 다리에 대한 영상들은 2차 대전시 축적된 프로파간다 영상에 대한 기술이 좀 더 매끄러워지고, 좀 더 부드럽게 관객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질문: 1895년 영화가 발명된 이래로, 움직이는 영상은 사진과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적 소재를 토대로 한 픽션영화, 기록영화 혹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지면서 역사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개입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상 편집이라는 기술은 영상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리얼리즘의 신화를 스스로 해체하면서, 현실을 영상제작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도록 하지만, 관객은 편집되어 정제된 영상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현실을 더 ‘리얼’하게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김민환 선생님의 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군들이 한국전쟁시에 직접 찍은 풋티지 필름이 미 육군성 필드 매뉴얼 11-40 에 따라 미군이 원하는 특정한 내러티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영상 중 이미지들이 선택되거나 배제되어 Big Picture 같은 2차 영상 혹은 3차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미군의 의도가 더 많이 개입된 2차 혹은 3차 영상에 비해, 원(原)필름으로서의 풋티지 필름이 현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결국 풋티지 필름 또한 후진국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지배자로서의 미군의 시선이 배제될 수 없는 영상이기애 2차 혹은 3차 영상과 큰 차이가 없는 영상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Big picture 시리즈 중 특히 미국 공병들이 임진강 다리를 새로 짓는 Engineer mission 영상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후진국에 선진 문명을 창조해주는 미국적 자부심의 상징적 영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자랑하는 서부개척 시대의 프로티어 정신이 한국이라는 머나먼 땅에서 새롭게 실현되는 이미지로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김민환 선생님은 이 영상에서 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를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러 온 단순한 존재일 뿐이며, 미군이 고안한 도구 혹은 장비와 등가로 취급되다가, 1960년대 ‘한국인의 자력 재건’을 강조하는 AFAK 프로그램의 영상에서는 한국인 노동자와 학생들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그려지며, ‘협력’하는 존재로 격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p.14). 하지만, AFAK 프로그램의 영상 속 한국인들의 모습을 향한 시선의 주체 또한 결국 미군이기에, 이 영상의 한국인들의 모습 또한 미군이 이뤄놓은 성과를 보여주는 프로파간다 영상속의 결국 도구적 존재일 뿐이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FAK 프로그램의 영상의 한국인들의 모습에 대해 ‘의존적’ 주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p.21), 그래도 임진강 다리 영상에서 보다는 이 영상속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이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시는 건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 AFAK 프로그램 영상의 20분 정도 지나면서 부터 갑작스럽게 미국 남성앵커의 나레이션이 중단되고, 숙명여대 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여성의 영어 나레이션이 잠시 등장하며,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주로 지배자로서의 미군의 시선이 깔려있는 문화영화 아리랑 다리 또한 소녀의 나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주로 한국 남성이 아닌 한국 여성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 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지? 이것은 1887년 피에르 로티 <국화부인>이나 푸치니 <나비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순종적인 여성으로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식민지 유럽 남성들의 시선의 미국식 (미군식)버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